

강원지역 식품 전공 학생들의 외식 행동과 중국음식에 대한 인식 조사

민성희 · 오혜숙*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과,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2년 5월 31일 접수)

A Survey on the Eating out Behaviors and the Perception about Chinese Foods of Food-Related Major College Students in Kangwon-Do Areas

Sung Hee Min and Hae Sook Oh*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Food & Nutrition, Se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Sangji University**

(Received May 31, 200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veral aspects of eating out behaviors especially in relation to Chinese foo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556 food-related major college students in Kangwon-do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requencies of eating ou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type of residence, and the amount of spending money per month of the subjects.
2. Korean foods had a tendency to be selected as a first choice of eating out with both family and friends. The subjects preferred Korean foods, Western foods, Chinese foods and Japanese foods in order with their family but flour based foods, western foods and chinese foods in order with their friends. Japanese foods were not selected at all when they ate out with friends.
3. The 80.7% of male subjects and the 58% of female subjects liked Chinese foods. High calorie food was the feeling about Chinese foods for the male subjects and greasy food was for the female subjects. Taste was the most considered factor for choosing Chinese foods.
4. The 80% of subjects answered that Chinese food culture affected that of Korea. The 77% of subjects thought Chinese noodles were settled down to Korea.
5. Using MSG to Chinese foods was recognized as health-concerning factor for 67% of male subjects and 72% of female subjec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chinese food, eating out behavior

I. 서론

식품에 대한 가치 및 태도는 사회, 문화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식품에 관한 경험 정도에 따라 변화된다.

식품의 섭취 양상은 궁극적으로 신체에 어떠한 영양소를 공급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지역적 조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¹⁾.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수준, 정신건강상태가 식행동 형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1), 2)}. 198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레저생활의 확대 등 외식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외식 지향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외식의 목적도 다양화되면서 외식 시장은 양적인 급성장 추세에서 질을 추구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소비 지출의 11.5%를 외식비로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으며³⁾ 특히 대학생은 규칙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전까지 학교 급식이나 가정식의 수동적인 식사형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외식 빈도가 높아진 연령층이다⁴⁾⁻⁶⁾.

임오군란 이후 우리 나라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소자본으로 중국 호떡이나 만두를 만들어 팔았으며 이런 음식들이 1900년 초 서울 중심부에 밀집하였고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도록 변화된 자장면이나 짬뽕, 잡채 등을 만들어 팔게 되어 이것이 중식당의 시초가 되었다^{7), 8)}. 이후 우리 나라에 토착화한 한국적 중국식들도 다량 개발되었으며, 고급 중국 음식점 뿐 아니라 도처에 있는 중식당이 우리의 외식 빈도를 증가시켰음은 물론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자장면, 짬뽕, 탕수육 등 중국음식이 포함되듯이 이제 중국식 면류는 우리의 외식 생활에 일상화되었고 면류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여 외식시 자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중국음식은 일반적으로 지방을 많이 사용해 열량이 높고,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나트륨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중국음식중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9), 10)}. 본 연구에서는 강원 지역 6개 대학 식품 관련 전공 학생들의 외식 행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알아내어 올바른 식생활로 이끌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이 외식시 많이 선택하는 중국 음식에 대한 견해 조사를 통하여 외식 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에서는 식품 관련 전공 학생들의 외식 행태와 중국 음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보고자 강원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명의 식품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55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2.6% 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외식 행태, 중국음식에 대한 견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t-test, χ^2 -test 및 ANOVA를 실시하여 변수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Duncan법으로 다중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36±2.29세였으며 18-20세가 396명으로 전체의 71%에 해당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68.3%, 남자가 31.7%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택 통학을 하는 경우가 46.0%,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24.1%, 자취생활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Gender	Male	176(31.7)
	Female	380(68.3)
	Total	556(100.0)
Age	< 18	4(0.7)
	18-20	396(71.2)
	21-25	136(24.5)
	26-30	18(3.3)
	>30	2(0.4)
	Total	556(100.0)
Type of residence	Home	256(46.0)
	Dormitory	134(24.1)
	Self boarding	166(29.9)
	Total	556(100.0)
Amounts of spending money per month (10,000won)	< 10	92(16.5)
	10-19	200(36.0)
	20-29	178(32.0)
	30-39	50(9.0)
	> 40	34(6.1)
	Total	556(100.0)

하는 학생이 29.9%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36%는 한달 평균 10-19만원, 32%는 20-29만원을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6.5%는 한달 용돈이 10만원 이하였고 30만원 이상을 쓰는 학생들도 15%로 조사되었다. 김 등¹¹⁾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강원 지역 식품 전공 학생들은 서울 시내 학생들의 한달 용돈보다 다소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식 행태에 관한 사항

1) 외식 횟수

식품 관련 전공 학생들의 외식 빈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외식은 학교 식당이나 기숙사 식당을 제외한 학교 밖에서 사 먹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주에 1회 외식한다는 학생이 남학생은 31.8%, 여학생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1일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 11.4%, 여학생 11.6%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 19.3%, 여학생 7.1%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24.1%에 달하여 이 학생들의 낮은 외식 빈도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녀간의 외식빈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어 이는 김의 연구¹¹⁾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외식에 대한 성별, 거주형태별, 용돈의 크기 별 외식 횟수는 <표 3>과 같다. 외식빈도는 1달에 1번을 1회로 하고 하루 한번을 30회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성별에 따른 월 평균으로 변환된 외식 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13회, 여학생의 경우 14회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자택 생활을 하는 학생이 11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15회, 자취하는 경우 16회로 자택에서 통학

<Table 2> Frequencies of eating out

Frequency of eating out	Male	Female	χ^2 -value
> 2/day	20(11.4) ¹⁾	44(11.6)	11.06
1/day	22(12.5)	56(14.7)	
2-3/week	26(14.8)	62(16.3)	
1/week	56(31.8)	129(33.9)	
1/month	18(10.2)	62(16.3)	
Almost not	34(19.3)	27(7.1)	
Total	176(100.0)	380(100.0)	

¹⁾ Frequency(column percent)

<Table 3> Converting frequencies of eating out by gender, type of residence, and spending money.

Gender	Total	13.90 ± 19.14 ¹⁾
	Male	13.13 ± 19.19
	Female	14.26 ± 19.16
	t-value	0.21 ^{NS}
Type of residence	Home	11.50 ± 16.58
	Dormitory	15.49 ± 21.10
	Self-boarding	16.39 ± 20.95
	F-value	1.96 ^{NS}
Spending money	< 10	11.74 ± 18.13
	10-19	11.94 ± 17.70
	20-29	14.61 ± 20.08
	30-39	17.52 ± 19.39
	> 40	19.41 ± 21.64
	F-value	2.01 ^{NS}

¹⁾ Mean ± Standard deviation of converting frequency per month

Converting factors are as follows, once a month → 1, once a week → 4, once a day → 30

NS: not significant

하는 학생들보다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외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학생들이 쓰는 용돈이 많을수록 외식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오⁴⁾ 등은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용돈 지출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외식하는 경우와 가족과 외식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품 관련학과 학생들은 외식시 한식을 가장 선호하여(p<0.001), 친구와 외식하는 경우 44.2%가, 가족과 외식하는 경우에는 63.7%가 한식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외식시 31.7%가 분식을 선택하였으며 양식이 10.1%, 중식이 8.3% 순이었다. 친구들과의 외식시 일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일식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경제적인 이유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¹⁴⁾의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외식시 가격이 가장 낮은 분식을 선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족들과의 외식에서는 한식 다음으로 양식(11.5%), 중식(10.8%)의 순이었으며 친구들과 외식시 선택하지 않는 일식을 4.0%가 선택하였다. 친구들과 외식하는 경우와 가족과 외식하는 경우 모두 중식보다

<Table 4> Favorite eating out food with friends or family

	Eating with friends	Eating with family	χ^2 -value
Korean food	246(44.2)	354(63.7)	137.54***
Chinese food	46(8.3)	60(10.8)	
Western food	56(10.1)	64(11.5)	
Flour based meal	176(31.7)	8(1.4)	
Japanese food	0(0)	22(4.0)	
others	32(5.7)	48(8.6)	
Total	556(100.00)	556(100.00)	

1) Frequency(column percent), ***p<0.001

는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¹⁴⁾. 노¹⁶⁾는 광주지역 남녀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주로 한식을 선택하였고 여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호도가 다르다고 하였으며 외식시에는 남녀 대학생 모두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중국음식에 대한 견해

1) 중국음식 선호도

중국음식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 남학생의 80.7%, 여학생의 58.4%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18.2%, 여학생의 40.5%,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학생 각1.1%로 나타나 중국음식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중국음식 선호도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중국음식이 칼로리가 높고 기름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중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노¹⁶⁾의 연구에서는 광주 지역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 보다 외식 시 자장면을 많이 선택하였

<Table 5> Preference of Chinese food

	Male	Female	χ^2 -value
Good	142(80.7)	222(58.4)	13.53**
Regular	32(18.2)	154(40.5)	
Not good	2(1.1)	4(1.1)	
Total	176(100.0)	380(100.0)	

1) Frequency(column percent), **p<0.05

다고 했으며 이¹⁷⁾ 등도 성인 남녀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장면이 다른 음식에 비하여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2) 중국음식에 대한 느낌

중국 음식에 대한 느낌은 남학생의 경우 46.6%가 열량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름지다고 느끼는 경우가 20.5%, 담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기름지다고 응답한 비율이 46.8%, 열량이 높다가 26.8%를 나타냈으며 담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4.7%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여학생의 중국음식에 대한 느낌은 음식의 외관이나 조리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며 남학생은 중국음식에 대해 열량이 높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3) 외식 시 중국 음식을 선택하는 이유

외식 시 중국 음식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남녀 모두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27.3%, 여학생의 28.4%는 값이 싸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11.4%, 여학생의 14.2%는 쉽게 접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고 남녀간의 유의적 차이

<Table 6> Feeling about Chinese food

Feeling for Chinese food	Male	Female	χ^2 -value
Fresh	2(1.1)	0(0)	34.02***
Light	26(14.8)	18(4.7)	
Greasy	36(20.5)	178(46.8)	
High calorie	82(46.6)	102(26.8)	
Regular	6(3.4)	50(13.2)	
Not answered	24(13.6)	32(8.4)	
Total	176(100.0)	380(100.0)	

1) Frequency(column percent), ***p<0.001

<Table 7> Reason for eating Chinese food

Reason for eating Chinese food	Male	Female	χ^2 -value
Good taste	90(51.1)	193(50.8)	0.38
Cheap price	48(27.3)	108(28.4)	
Easy to approach	20(11.4)	54(14.2)	
Not answered	18(10.2)	25(6.6)	
Total	176(100.0)	380(100.0)	

1) Frequency(column percent)

는 보이지 않았다.

4)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견해

(1) 중국 음식문화가 한국 음식문화에 끼친 영향

중국의 음식문화가 한국의 음식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64%가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15%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중국 음식문화가 한국 음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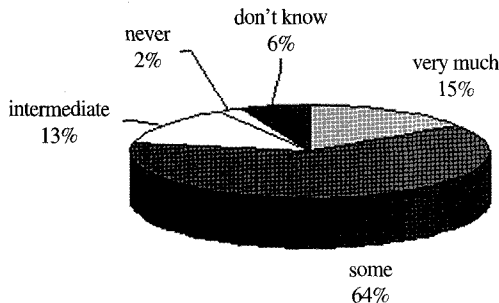
(2) 한국에 토착화된 중국음식

한국에 토착화한 중국음식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77%가 자장면, 짬뽕과 같은 면류라고 응답하였으며, 만두류가 8%, 간풍기, 탕수육 등 수조육류가 9%, 채소, 해물요리가 4%, 탕류가 2%로 조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중국 음식으로 대중화된 것은 면류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 요리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다양한 서양 요리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개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¹⁸⁾ 중국 개방이후 유입될 다양한 중국 음식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하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도 노력하여 외식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 Concern about the using MSG in Chinese food

Concern about MSG in Chinese food	Male	Female	χ^2 -value
Serious concern	16(9.1)	44(11.6)	1.62
Somewhat concern	102(57.9)	228(60.0)	
No concern	52(29.6)	98(25.8)	
Unknown	6(3.4)	10(2.6)	
Total	176(100.0)	380(100.0)	

1) Frequency(column percent)



<Fig. 1> Influence of Chinese food on Korean food

(3) 조미료 사용에 대한 견해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에는 조미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음식의 조미료 사용에 대한 견해에는 남녀 모두 걱정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지만 (남학생 67.0%, 여학생 71.6%), 남학생의 29.6%, 여학생의 25.8%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남학생 3.4%, 여학생 2.6%로 나타났으나 모두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IV.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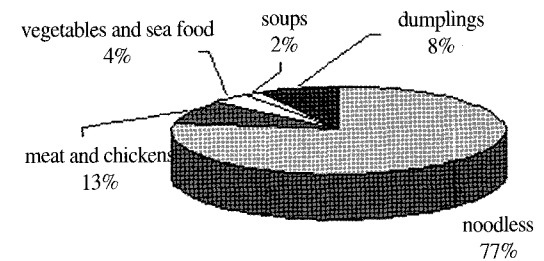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강원지역 식품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식생활 행동을 확인하여 올바른 식생활 태도로 이끌고, 중국 음식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외식업계에 중국음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556명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여학생이 68.3%, 남학생이 31.7%였으며, 자택 통학을 하는 경우가 46.0%, 기숙사나 자취생활을 하는 경우는 29.9%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68.0%가 10-29만원을 한달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외식 빈도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적이지 않았고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식 빈도는 용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강원 지역 식품 관련학과 학생들은 외식시 한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고, 친구들과 외식시에는 한식, 분식, 양식, 중식을 선호하였으며 일식은 선택하지 않았다.

4. 강원 지역 식품 관련 학과 학생들은 남학생의



<Fig. 2> Kinds of Chinese food settled down to Korea

80.7%, 여학생의 58.4%가 중국음식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음식에 대한 느낌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높은 열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기름지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국음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맛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 조사 대상자의 80%가 중국음식문화가 한국음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토착화 된 중국음식은 조사 대상자의 77%가 면류라고 응답하였다.

6. 중국 음식의 조미료 첨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남학생의 67.0%, 여학생의 71.6%가 조미료에 의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강원지역 식품 관련 학과 학생들의 외식 빈도는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식 시 한식을 가장 즐겼고 중국 음식은 대체로 선호하였으나 열량이 높거나 기름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 음식의 조미료 사용에 관하여 건강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면류를 제외한 중국 음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이었는데 중국음식의 요리 부분을 대중화를 위해서는 serving size 줄이기, 재료의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Moon SJ, Kim JY. A study of value evaluation for food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 Culture* 7(1): 25-34, 1992.
- 2) Hwang HS, Sohn KH. The analysis of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and sex. *Korean J Diet Culture* 3(2): 177-185, 1988.
- 3) <http://www.nso.go.kr>
- 4) Oh HS, Min SH. A study on dietary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in Wonju area, *Korean J Diet Culture* 16(3): 215-224, 2001.
- 5) Lee HB, Yoo YS. A study on lunch meal practice of the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 Culture* 10(3): 147-154, 1995.
- 6) Cho HS. A study on college students' dietary behavior and consciousness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Junlanamdo. *Korean J Diet Culture* 12(3): 301-308, 1997.
- 7) Lee SW. History of Korean Food, pp233-234, Suhak Co., 1998.
- 8) Yoo AR. Looking for Korean Food Culture, Kyobomungo, 1997.
- 9) Park TS, Kim EK. Nutrition in Modern Society, p188, Kyomunsa, 2000.
- 10) Chang KJ, Cha W. A study on self-recognized monosodium glutamate symptom complex in eating out of housewives in Incheon.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0(6): 548-559, 2000.
- 11) Kim HS, Chung CE.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 Culture* 16(2): 147-157, 2001.
- 12) Lyu ES. A study on dietary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Pusan. *Korean J Diet Culture* 8(1): 43-54, 1993.
- 13) Kim SH. A comparison of food consumption styl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in Gongju area. *Korean J Nutr* 28(7): 653-674, 1995.
- 14) Ahn SJ.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dining ou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4): 383-393, 1989.
- 15) Koo NS. A study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Taejon. *Korean J Dietary Culture* 10(4): 357-366, 1995.
- 16) Ro HK.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eat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 Culture* 14(3): 241-249, 1999.
- 17) Lee YM, Lee K, Chang HK.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J Diet Culture* 11(3): 317-326, 1996.
- 18) Nha YA.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cooking method about western food in Seoul area. *J East Asian Society Dietary Life* 3(1): 51-59, 1993.